

지역 소식통

부안군, 2023년 제1단계 공공근로 사업 추진

부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취약계층, 장기실업자 등 군민을 대상으로 '2023년 제1단계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이달 5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하며, 모집대상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9% 이하이며 재산액이 2억원 미만인 자로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민이어야 한다.

단, 실업급여 수급자(마지막 수급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자)와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등은 선발에서 제외된다. 선발대상자는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등 각 사업부서에서 DB관리, 서비스 지원 및 환경관리 지원 등의 유형 사업분야에 근무하게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겨울철 폭설 대비

철보면 제설봉사단 발대식

정읍시 철보면(면장 김용천)은 7일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기 위해 '철보면 제설봉사단' 발대식을 열고 봉사단과 간담의 시간을 가졌다.

철보면 제설봉사단은 겨울철 폭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각 마을 이장과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 등 20명의 봉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주요 도로변과 마을 진입로, 도로변 결빙 구간 등을 중심으로 제설을 책임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단원별 담당구역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 방안을 공유했다. 또 제설봉사단의 각종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위험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설명했다.

김용천 면장은 "면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해주신 단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설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노사민정, 정책권고안 전달

군민 대상 설문조사 · 공론화 통해 논의한 일자리 정책 등 7건

고창군 노사민정 대표들이 7일 군민 대상 설문조사 ·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발굴한 7건의 정책권고안을 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창군 노사민정 대표들은 고창군 미래 일자리 비전, 기업유치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월 개최한 노사민정 사회화대회를 시작으로 각종 인터뷰, 공론화 등을 거쳐 정책권고안을 확정했다.

앞서 고창군은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노사민정 대표들이 함께한 자리를 마련해 왔다.

전달된 정책권고안을 살펴보면,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과 인력난 해소 정책 병행 △기업 유치로 조래될 수 있는 우려 사항에 대한 사전 대책 마련 촉구 △지속 가능한 ESG 경영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 유치 △청년 일

자리 창출 △기업 유치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이다.

심덕섭 군수는 "고창군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대어 주신 노사민정 대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군정을 추진하는 데 각계각층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활력 넘치는 고창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신재효문학상, 박이선 작가 '염부(鹽夫)' 수상작 선정

고창다운 문화콘텐츠로 관광자원화 될 장편소설

제2회 고창신재효문학상의 당선작이 박이선 작가(사진)의 '염부(鹽夫)'로 선정됐다.

7일 고창군 신재효문학상운영위원회는 제2회 고창신재효문학상 수상작으로 박이선 작가의 '염부'가 선정되었음을 알렸다. 심사위원단(이병천 · 정지아 · 방민호 · 박영진 · 김종광 위원)은 국내 최고의 문인들로 꾸려졌으며, 수상작의 상금은 5000만원이다.

당선작으로 뽑은 '염부'는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를 내세우지만, 일제강점기(1940년 여름)부터 미군정 때까지 고창의 역사와 문화와 자연을 세심하게 기록한 일종의 실록소설이다.

심사위원들이 주목한 이 작품의 매력은 두 청춘의 사랑담 뿐만 아니라 고창 근현대의 다양한 국면들을 살아 숨 쉬는 이야기로 여유있고 편안하게 녹여냈다는 심사평이다.

박이선 작가는 1969년 전북 남원에서 태어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2015년 전북일보 신춘문예 '하구(河口)'로 등단했으며, 작품 '이네기'로 대한민국디지털작가상을 수상했다.

판소리 소설을 집대성한 '한국의 세

익스피어' 신재효 선생을 배출한 고창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소재로 하는 문화콘텐츠 제작 기반을 위해 '문학상'을 제정했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약 8개월간 고창을 소재로 하거나 고창 관련 인물 등과 관계된 창작품 중 미발표작을 대상으로 작품을 공모했다.

당선작은 내년 3월 중 출판사 다산북스(대표이사 김선식)를 통해 출간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의 역사 · 자연 · 지리 · 인물 · 문화 등을 소재와 배경으로 한 작품을 통해 고창의 다양한 이야기가 문화콘텐츠로도 제작돼 전 세계에 고창을 알리는 문화관광자원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행렬 이어져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날씨 속에서도 정읍시에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부행렬이 이어져 따뜻한 겨울을 전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전북도회 서남권지회(지회장 김환식)는 7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정읍시에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김환식 서남권지회장은 "연말을 맞아 우리 미래 주역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과 뜻을 모아 장학금을 마련했다"며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용하게 사용될라"고 말했다.

같은 날 농소동에 소재한 삼성콘크리트공업(주) 김현삼 대표도 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인재 육성에 힘

을 보냈다.

삼성콘크리트공업은 지난 1985년 정읍공장을 등록한 레미콘회사로 최고 품질의 제품생산에 노력하고 있다.

김현삼 대표는 "기쁨은 나눔수록 배가 되는 것 같다"며 "지역 후배들의 더 나은 미래와 꿈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정읍시 테니스협회(협회장 이병관)도 지역 학생들이 우수 인재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라며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병관 협회장은 "지역 학생들이 학업에 전진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장학금을 전달한다며 인재 육성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아쿠아포닉스' 시범 조성

부안군, 내부수조에 물고기 사육 · 상부에 엽채류 재배 하부에 다슬기 사육... 친환경 신기술 재배방법 운영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는 상서면 내변산로 새기술실증시범농장에 아쿠아포닉스를 시범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쿠아포닉스란 내부수조에 물고기를 사육하고 베드 상부에 엽채류 재배, 하부에 다슬기를 사육 하는 농업 신기술 재배방법으로 물고기, 다슬기, 엽채류를 수확하여 소득화가 가능하며 물고기가 사용한 물을 식물이 이용, 정화하여 물의 사용을 최소화으로 줄인 친환경 재배방법이다.



부안군농업기술센터는 상서면 내변산로 새기술실증시범농장에 아쿠아포닉스를 시범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부안군 신소득작물 발굴을 위하여 2022년 조성하여 엽채류 재배, 육묘 배지 비교시험을 진행하며 어린이들에게는 자연 생태학습을 관내 농업인들에게는 아쿠아포닉스 재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조성된 아쿠아포닉스에는 버터헤드, 바타비아, 로메인, 톨로 등 15종의 유립상추를 식재하였고, 베드 하부 안에는 다슬기를 사육하고 수조에는 황어 400마리, 비단잉어 200마리를 사육중이며 조만간 더 다양한 작물을 시험하여 아쿠아포닉스를 방문하는 농업인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지친 부안군민과 관광객에도 이색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드림스타트, 예비 중등 부모교육 운영

예비 중학생 자녀 위한 3가지 감정코칭 대화법 강의

정읍시는 지난 6일 드림스타트 영상회의실에서 지역 내 예비 중학생을 양육하고 있는 취약계층 양육자를 대상으로 '예비 중등 부모교육'을 진행했다.



고, 짜증도 많이 늘어나서 걱정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하여 마음의 짐을 덜어 낼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부모교육은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동과 학부모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감정코칭협회 민혜영 강사를 초빙해 우리 아이를 위한 3가지 감정코칭 대화법에 대해 강의했다.

민 강사는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들과 부모의 대화를 통해 자녀들을 존중하면서 멀어지지 않도록 대화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또 자녀들이 중학교 입학이라는 신체적 · 정서적으로 큰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다양한 방법을 설명했다.

이어,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 부모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 했다.

부모교육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자녀가 요즘 사춘기라서 대화를 거부하

고, 짜증도 많이 늘어나서 걱정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하여 마음의 짐을 덜어 낼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동들이 즐겁고 유익한 학교생활을 하길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자녀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